

청각 장애인 위한 수화법회

법당이 없어서...

도원 스님, 10년 동안 6곳 옮겨 다니며 '고투'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회를 열고 있는 도원 스님(왼쪽)은 법회공간이 없어 전전금금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통도사 육련암에서 열린 청각장애인 수화법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법문을 듣고 싶어도 들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수화법회를 시작했는데 법회 공간이 없어 이리 저리 옮겨 다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0년 전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회를 시작한 도원 스님은 청각장애인 포교의 아픈 현실을 털어놓았다. 그동안 옮겨 다닌 사람만도 6곳. 매월 첫째 셋째 주 두 차례 열리는 수화 법회는 스님이 부친 소임을 살고 있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거나 장애인 포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옮겨 다니길 반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도원 스님이 청각장애인 포교를 결심한 것은 10년 전, 어느 사찰 법당 앞에서 "법문을 너무나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다"는 메모를 쓰면서 울먹이는 보살을 만난 이후였다. 그 보살을 만난 이후 스님은 곧바로 청각장애인 포교를 결심했고 부산불교교육대학 수화반에서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수화를 배우지 1년 만에 단 2명의 청각장애인을 앞에 두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회를 연 것이 부산농아인복지회 창립으로 이어져 지금은 등록인원 120명, 평균 법회 참석인원 40여명을 넘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서울 영등포교회, 성남수화교실, 농아인협회 등 수화반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 도원 스님의 열정과 부산불교교육대학 수화봉사모임 심여희의 든든한 후원과 자원봉사가 버팀목이 돼 왔다.

사찰 사정 · 이해 부족 이유

"불법 앞엔 평등" 관심 호소

여섯번째 옮겨온 곳이 해운대 썬프라자 3층 여대선원. 이곳에 임시 등지를 틀었지만 얼마동안 법회를 볼 수 없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에서 법회 공간 마련에 대한 걱정이 떠나질 않는다. 도원 스님과 부산불교교육대학 수화봉사모임 심여희가 열고 있는 수화법회는 부산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유일한 법회여서 불법을 알고 싶어 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인기가 높다.

도원 스님의 수화 법회를 돕고 있는 농아 임희규(45) 씨는 "불교를 알고 싶어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답답했는데 스님이 법회를 열어주니 부처님법도 배우고 농아인 교류 공간도 되고 너무 좋다"며 "불교를 몰라 장애를 원망하고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더 많이 전해줄 수 있었으면 한

현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뜻 모아 산중화합 이룰 것"

경봉문도회 정식 출범 ... 열반 23주기 추모법회도

통도사 극락암(도감 명정)은 7월 3일 경봉 스님 열반 23주기를 맞아 추모법회(사진)를 봉행하고 경봉문도회 정식 출범을 알리는 창립총회를 함께 열었다.

성수 스님, 초우 스님, 원명 스님, 명정 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추모 법회는 문도 대표의 헌향,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경봉문도회는 이날 성수 스님을 증명, 원명 스님을 회주로 통도사 백련암 원산 스



화합이 영축종된 산중의 화합과 나아가 한국 불교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문도들의 뜻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구·비구니 38명에 장학금 범문집 발간, 선 세미나 계획

님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등 조지를 갖추고 경봉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선종 교화를 진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앞으로 경봉문도회는 전국에서 흩어져 수행정진 중인 경봉 문도들의 뜻을 결집하고 승가 화합의 모범을 보이는 한편, 경봉 스님의 선사상 재조명을 위한 범문집 발간, 선사상 선양을 위한 선(禪)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도회장 원산 스님은 "경봉 문도들의

뜻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님은 "경봉문도회가 방상선출을 두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립, 갈등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방상 선출은 합법적, 합리적인 절차를 따라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원칙적으로 승가 화합을 해치지 않으면서 산중의 뜻을 모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추모 법회와 함께 열린 경봉 장학회(이사장 원명)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비구·비구니 38명에게 총 2천 8백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글 · 사진=현미희 기자

전문활동가, 재정독립 등 선결

부산불교발전 위한 세미나

7월 4일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가 주최한 부산불교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원철스님은 "한국불교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핵심 신도 1백만 명 양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정표 부산불교신도회 기획실장은 "부산불교신도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행과 수행에서 모범이 되는 지도자와 전문성을 갖춘 상근 활동가, 불교적 이해에 바탕을 둔 뚜렷한 사업목표, 재정 독립 등의

난제들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존사 주지 장산 스님은 승가의 역할에 대해 "신도회 주지 스님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사찰간 연대를 통한 신도회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류상영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부장, 객관연 동아대 교수 등은 지역 신도회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의 여타 실행단체와의 유기적 연계 △ 사찰 재정 투명성 확보 △ 사찰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신도의 자율 운영 참여 등을 제안했다.

현미희 기자



리틀 야구단 생긴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창단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7월 2일 어린이 야구단 창단을 위한 예비모임을 갖고 창단 준비에 들어갔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포교국장 인허 스님과 리틀야구단 김현자 감독, 예비 리틀야구단원과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등번호 배정과 야구단복의

디자인과 연습계획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인허 스님은 "미래불교계의 희망인 어린 세력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리틀야구단을 창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리틀 야구단의 창단을 앞두고 10세에서 13세까지 야구에 관심있는 남자 어린이를 모집중이다. (053) 474-8228 배자선 기자 jsun@buddhapia.com

단신

백련불교문화원 개원 8주년

백련불교문화원(원장 심진)은 7월 6일 개원 8주년 기념법회를 백련불교문화원 법당에서 봉행했다.

백련불교문화원의 참선, 3천배 기도 정진,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함께 공부해온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저녁예불, 대불정념염신주 불독, 회향계, 발원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백련불교문화원은 해인사 백련암에 주석했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일반 대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개원한 이후 8년 동안 상암법사 심전 법사를 중심으로 참선반, 불교교리 입문반, 선문(禪文) 독송, 삼천배, 아미타기도 등의 수행방법으로 대중들의 정진을 이끄는 도심 수행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051)253-0277 천미희 기자

해인사, 테마별 수련회 '눈길'

법보총괄 해인사(주지 현웅)가 7월 4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9차에 걸친 수련법회에 돌입했다.

매년 참선과 묵언 등 엄격한 수행코스 로 유명한 해인사가 이번 여름에는 '깨어있는 휴식'이란 주제로 참선, 염불, 주력 등 다양한 수행법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목을 끌고 있다.

7월 4일부터 8일까지,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1, 2차 수련법회는 참선수행, 7월 18일부터 열리는 3차 수련법회는 염불

수행, 25일부터 29일까지는 주력수행, 7차 8차, 9차 수련법회는 기초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055)934-3110 배자선 기자

장애인 위한 '계절학교' 열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이 여름방학을 맞아 실시하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대상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인 '계절학교'에 참가할 장애 아동 및 장애 청소년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7월 25일부터 2주간 열리는 계절학교는 미술활동, 음악활동, 견학 등 체험위주의 놀이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회 적응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054)776-7522-5 배자선 기자

삼사관학교 군법사 임관 및 고불식

7월 1일 영천 육군 삼사관학교에서 거행된 군중사관 제 63기 임관식에서 군 포교를 이끌어갈 군중법사 16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9년간의 강도 높은 교육을 마치고 새롭게 탄생한 해군 3명, 공군 3명, 육군 10명의 신임 군중법사는 임관식 후 삼사관학교 군 법당 호국사에서 고불식을 봉행했다.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비롯한 은사스님과 사형, 사제, 도반, 속가 부모 친지 등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고불식은 부처님 전에 3배, 은사스님에게 3배, 전법칙령 합송, 발원문 낭독에 이어 도영 스님의 선물증정으로 진행된 배자선 기자

Advertisement for e-book and foreign book sales. Text includes 'e-book과 외국도서판매까지', '여시아문과 함께 독서로 즐거운 여름을 보내세요!', and website 'www.yosiamun.com'.

마하야나불교대학 강좌 개설

대구사원주지연합회 부설 마하야나불교대학(학장 무민)이 8월 2일부터 한달간 불교기분강좌를 개설한다.

매주 화·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법회를 열며' '절을 찾아서' '불교란 무엇인가' 등의 주제에 따라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 스님과 운문사 학강 일진 스님, 마하사 주지 재원 스님 등이 강단에 오른다. 마지막 강제가 열리는 8월 26일에는 법혜 스님을 계사로 수계식이 진행된다.

마하야나불교대학은 사원주지연합회 부설교육기관으로 1988년 설립되어 지역불자들의 교육에 큰 몫을 담당해왔다.

백장선원 '한여름 밤 음악법회'

21세기 새로운 불교수행공동체를 기치로 지난 5월 창립한 백장선원(이사장 원규)이 대구 능인선원과 함께 '한여름 밤 음악법회'를 개최한다.

7월 16일 오후 6시 대구 가장 허브힐스에서 개최되는 음악법회는 1부 저녁공양, 2부 법회, 3부 음악회로 진행되며, 대구 능인선원 주지 혜장 스님이 법문을 하고 시명 스님, 이종현, 김경애, 최광철 등이 출연한다. 그 외 대구사원주지연합회 마하야나 합창단과 서봉사, 성화사 합창단이 출연 법음을 들려준다. 일반인 회비는 1만5천원이며 백장선원 정회원과 청소년

Daewon Buddhist Academic Institute 2005학년도 후학기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서울 · 부산 / 2년제 4학기)

교육목표: 불교학은 불타의 교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불교적 인격과 이상사회를 구현하려는 학문으로서, 인간성성의 본질과 삶의 문제, 참다운 인간성과 이상사회의 실현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해명과 비전을 담고 있는 종교학이자 철학적 성격을 담고 있는 학문으로서, 교학으로서의 진리성과 수행으로서의 방법론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상체계입니다. 따라서 분석적 사고를 통한 냉철한 지성과 함께 그것을 바탕으로 한 수행으로서의 실천이 요구되는 학문입니다. 이에 대원불교대학은 불교사상이 현재와 미래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고, 지혜와 자비의 불교적 인격을 갖춘 사회 지도자 양성에 교육 목표를 둡니다.

- 모집과정: 부산 / 불교입문과정 주·야간반 각 00명 (주1회 출석 오전11시)
대학과정: 서울 / 야간반 00명 (주 2일 출석 · 5과목)
부산 / 주·야간반 각 00명 (주간: 오후2시, 야간 :오후7시 / 주 2일 출석 · 5과목)
대학원 과정: 서울 / 야간반 0명, 부산 /야간반 0명 (주 2회 출석 오후 7시)
통신과정: 00명

- 지원자격: 입문과정: 불교 기본 교육을 받고 싶은 초심자
대학과정: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
대학원 과정: 불교대학 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포교사 자격 소지자 우대)

- 전형일정: 원서교부: 2005년 7월 1일 - 2005년 8월 25일
원서접수: 2005년 7월 2일 - 2005년 8월 26일 (대학원은 8월 18일까지)
대학 전형: 입문과정 및 대학과정은 서류 전형
대학원 전형: 면접 및 구술시험일
서울 / 2005년 8월 20일 토요일 14:00 (2층 대학원 강의실)
부산 / 2005년 8월 21일 일요일 14:00 (4층 대학원 강의실)
합격자 발표: 2005년 8월 23일 (개별 통보)
입학식: 서울 / 2005년 8월 28일 일요일 오전 11시 큰법당
부산 / 2005년 8월 21일 일요일 오전 11시 큰법당

- 전형료 및 수업료: 전형료: 입문과정 10,000원, 대학과정 20,000원, 대학원과정 50,000원
수업료: 입문과정 10만원 (기성회비, 교재비, 불적답사 등 행사비 포함) / 대학과정 20만원 (기성회비, 교재비, 불적답사 등 행사비 포함)
대학원과정 25만원 (기성회비, 교재비, 불적답사 등 행사비 포함) \*2회 분할 납부 가능
전형료 및 수업료 납부: 서울 / 국민은행 098-01-0244-009 (예금주: 한국불교대원회)
부산 / 기업은행 252-028746-01-017 (예금주: 한국불교대원회)

-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TEL 02)754-1613, 773-9171
부산: 부산대원불교대학 교학과 TEL 051)583-7700, 583-7811-2
\*전화 신청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학업계획서 1부 (대학원 과정)

-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 TEL 02)754-1613, 773-9171 FAX 02)771-6796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하차하여 남대문로 방면 출구 · 버스: 서울역 4번출구 남대문로에서 사내버스 402번 0014번 승차 '후암역'에서 하차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382-3 / TEL 051)583-7700, 583-7811-2
지하철: 장전동 지하철역 1번출구에서 부산대 정문방면으로 오시다가 카센터에서 좌회전
버스: 29, 29-1, 29-2, 29-4, 1-51, 51-1, 51-2, 77, 80, 80-1, 100, 121, 130, 130-1, 178 정전 1파출소 정류소에서 부산대 정문방면으로 오시다가 카센터에서 좌회전

대원불교운동을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www.idaewon.or.kr / www.buddhaschool.or.kr

